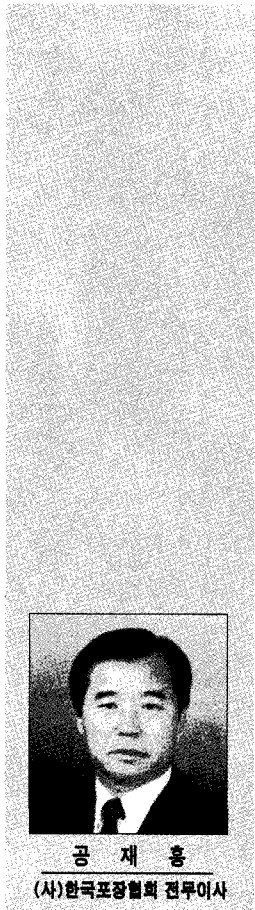




포장기술사 · 포장기사 · 포장산업기사 폐지에 대해



공재홍
(사)한국포장협회 전문이사

지난 2002년 9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국가기술자격종목 정비 계획(안)”에 포장기술사,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등 포장산업 분야의 모든 종목이 전면 폐지 된다는 내용을 보고 허탈감과 함께 분노마저 느낀다.

더구나 60년대부터 40년을 이어온 포장산업의 국내 유일한 국가 자격증이 일개 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에 의해 관련 분야와 의견 조율도 없이 단숨에 잘라 낸다는데 대해 할 말을 잇을 정도로 어이가 없다.

포장산업은 인류사회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시장(施裝)되어야 하고, 분배를 위한 전 유통과정에서 포장 없이는 한치의 유통도 불가능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며 식량, 의약품 등 인류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음은 물론 가공식품, 주류 및 음료, 세제, 잡화, 각종 공업제품과 심지어 중공업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모든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포장은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고도 중요하다.

이에 선진국들과 우리의 경쟁국들은 자국의 포장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정규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두

포장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오류

어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이웃 일본은 포장기술사, 포장전사 등의 자격을 관리하고 있고 일본내 각 기업체마다 포장 개발과를 두어 연구와 개발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규모 또한 각국 GDP의 2% 내외를 차지하는 뚜렷한 산업의 장르이다.

우리 정부(산업자원부)도 2001년도에 포장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신지식산업"으로 지정하여 포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같은 정부 부서인 노동부의 처사는 심히 부당하며 국제적인 시류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장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용역기관의 담당자 또는 훈련기관 담당자의 무지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또한 포장기술사보다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의 하부체계가 적다는 폐지사유는 아직 정규 대학(4년제)에서 포장학과가 개설되지 않고 있고, 2년제의 전문대학(2개 대학)이 개설된 지 6~7년 밖에 안 되는 비교적 교육역사가 타

분야 비해 짧은 교육환경 때문이며, 2002년 들어 연세대학교에서 포장학과가 개설된 시점에서 포장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이제 활성화의 기틀을 조성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국내 모든 포장산업 종사자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

물론 총 601개의 각종 국가 자격증 중 시대가 요구하는 신설 과목 또는 비효율적인 과목 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포장산업 분야를 통폐합도 아닌 폐지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를 도외시하고 그 중요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고, 당연히 제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분명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 포장산업은 포장협회를 중심으로 포장관련 국가 자격증 폐지에 대한 성토와 대국민 호소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며, 정부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확한 분석과 재검토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